



“아픈 역사 함께” 코로나 뚫은 시민들의 염원

광주·전남 日 강제동원 할머니 세 분 자서전 제작 모금 펀딩 564명 직접 기부 등 1만명 한뫼... 목표액 1천만원 조기 달성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밖에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빼어난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반드시 책으로 기록되어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잊어선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광주·전남 지역 세 할머니의 자서전 제작을 위한 모금 펀딩에 참여한 기부자들이 남긴 댓글들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자서전 발간을 위한 모금 펀딩이 조기에 완료되면서 출간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8월 11일부터

키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키카오같이’와 함께 진행한 모금 캠페인에서 목표 모금액 1000만원을 달성했다. 당초 모금기간은 16일까지였지만,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시기에 종료됐다. 모금 펀딩에는 직접기부자 564명(906만4400원)을 비롯해 참여기부자 9370명(93만560원)이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조성된 기금은 쫓겨

운 소녀에서 이제는 70여년의 세월이 흘러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린 양금덕(나주·90·사진)·김성주(순천·90)·김정주(순천·92) 할머니의 아픈 상처와 기억을 역사로 오롯이 새길 발전이 된다.

시민모임은 모아진 기부금으로 올해 안에 할머니들의 자서전을 출판할 계획이다. 자서전에는 할머니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된 경위, 현지에서의 강제노역 생활, 해방 후 자식들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진 삶,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에까지 나서 싸워 온 힘든 여정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서전은 미쓰비시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편, 언니는 미쓰비시로 동생은 후지코시로 동원된 김

성주·김정주 할머니 편 등 각 200쪽 분량의 책 두 권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할머니 세 분의 자서전 출판마련을 위해 모금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려므로 조심스러웠으나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시지 모를 할머니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 미룰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역사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소중한 뜻을 담아 이제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19년 국어책임관 업무 광주시 동구 ‘최우수기관’

광주시 동구가 한글날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7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각 1곳씩 선정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대전시·광주시 동구가 선정됐다.

‘국어책임관’은 국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각 기관의 공문서나 대민서류 등에 쓰이는 언어를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역할 등을 위해 도입됐다.

동구는 그간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 보도자료, 주요 보고자료 등의 사전 감수를 통해 어려운 외국어·문자 표현 자체 ▲ 공문서 등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 국어진흥조례 제정 ▲ 조례 내용 중 한자어 정비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인문도시 동구를 표방하는 동구가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한 대국민 소통과 국어 보존 및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폭우의 흔적 7일 수확기를 앞두고 나주 다시면 영동리 들녘에 지난 9월 폭우로 떠밀려 온 곤포 사일리지 더미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곤포사일리지는 가을 추수 후 나오는 볏짚으로 만든 직경 1~1.5m의 사료용 볏짚덩이로 1개당 500kg에 달해 수확을 마치고서야 제거 할 수 밖에 없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시대 딱!”...농산어촌 유학 ‘전남학교’로 오세요

도교육청 전학 프로그램 추진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전남학교로 오세요.”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전남지역의 교육환경을 활용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농산어촌 유학은 전남 이외 지역 특히 도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농산어촌 학교에 전학하는 프로그램으

로, 해당 지역 가정에서 거주하는 농가(홈스테이)형, 가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주해 마을에서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등으로 운영된다.

도 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부터 순천·곡성·구례·담양·화순·강진 등 6개 지역 면 단위 소규모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학누리집 개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범미경 전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전남의 농산어촌학교는 지역별 특색을 활용한 생태 교육에 유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위드코로나 시대 최적의 교육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이 유입돼 전남교육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초·중·고 전면등교 여부 11일 결정

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땀 일부 가능

광주·전남지역 학교들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11일 이후 등교 학생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오는 11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회의를 갖고 12일 이후 초·중·고등학교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환자가 주춤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때는 초·중·고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전체 학생이 900명 이하인 학교는 학교장 재량 등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광주 지역에서 900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전체 154개교 중 87.6%인 135개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유·초

·중학교는 동시시간대 등교학생 수 3분의 1 이내에서 시차등교, 오전·오후 등교, 학년별 흠뻑제, 격일 등교 등의 방식을 적용해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8일까지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3분의 1’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교육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교 방식 전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진자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해 완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 증가가 변수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주말께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범죄 예방 여성안심거울 40곳 설치

광주시 북구가 여성들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성안심거울’을 설치했다.

이번 여성안심거울은 북부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추천을 통해 실시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원룸 20곳과 공원 화장실 20곳 등 총 40곳을 대상으로 현관

과 화장실 입구에 건물 출입시 뒤를 비취주는 반구형 거울인 여성안심거울을 설치했다. 북구는 안심거울을 통해 출입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만일의 상황 시 범죄자의 얼굴이 비취지면서 범죄를 포기하게 하는 등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역동적으로 일하는 남원시의회” 시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회
공감하고 소통하는 화합 의회

역동적으로 일하는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